

부 고

메리 제임세타 MARY JAMESETTA 수녀

ND 3781

로즐린 메리 크라프티 Roseline Mary KRAFTY

미국, 샤든,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21 년 6 월 13 일	오하이오 베니스
서 원:	1941 년 8 월 11 일	오하이오 툼레도
사 망:	2023 년 2 월 6 일	오하이오 실바니아
장 례:	2023 년 2 월 9 일	오하이오 와잇하우스

“내가 받은 선물을 선물로써 주리라.” 성 이레네우스

로즐린은 오하이오 베니스에서 마이클과 헬레나 (릴리) 크라프티의 아홉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35 년 9 월에 고등학교 1 학년생이었을 때 아스피랑이 되었다. 그리고 4 년 후인 1939 년 1 월에 언니인 메리 윌터 크라프티를 따라 툼레도의 노트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처음 몇 년간의 사도직은 수련소 요리사였다. 수녀는 메리 멘스 대학에서 교육학 학위를 받고 툼레도 교구의 가톨릭 본당 학교에서 3 학년부터 8 학년 사이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0 년 내에 오하이오의 다양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직을 겸임했다.

수녀의 선교사적 마음은 수녀를 PNG 로 이끌어 1967 년부터 72 년까지는 반즈에서 6 학년을 가르쳤고 1993 년부터 99 년까지는 지원자 지도 수녀로서 도움을 주었다.

선교사로 지내던 시기의 사이사이에는 교사, 개인 교사, 교장, 회계, 경리 보조, 안내실 담당, 오하이오 와잇하우스의 리알 수녀원 분원 책임자 등 다양한 책임을 맡았다. 수녀는 80 세였을 때 툼레도의 우술린 수녀원에서 안내실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도직까지 수락했다.

1999 년, 제임세타 수녀는 툼레도 성 미카엘 본당에서 자원 봉사 사도직을, 2004 년부터 15 년까지는 사목 사도직을 맡아 수행했다. 수녀는 그 후 평생 많은 성 미카엘 본당 신자들과 연락하며 지냈는데, 이는 단지 수녀가 기쁨과 웃음, 다른 이들에 대한 주의를 나누는 많은 방식 중 하나였을 뿐이다.

오하이오 와잇하우스의 노트담 센터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는 노인 수녀들을 보조하기 위해 공동체 봉사안에서 자신의 많은 재능을 사용하곤 했다. 하루에 두번씩 손에 목주를 들고 집에서 성모상까지 걸곤 했다. 그런 다음 보행기에 앉아서 성모님을 바라보고를 기도를 바쳤다. 그곳에 있는 수녀의 모습은 많은 수녀들에게 영감이 되었다.

수녀는 장수의 선물을 받아 활력과 휴머와 친절함으로 한 세기를 살았다. 2022 년 12 월, 수녀의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그 자신의 원의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시간이 되었어요.” 메리 제임세타 수녀는 기꺼이 오하이오 실바니아의 로자리 케어 센터의 환자가 되었다. 더이상 방문객들과 긴 대화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그들에게 현존하며 머물러 있었다.

2023 년 2 월 6 일, 101 를 일기로, 수도 서원 82 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수녀는 영원한 고향에 들어갔다. 수녀는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봉사를 행하곤 했다. 수녀가 사랑의 하느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